

전국적 채용 가이드라인 시급... 꼭 필요하면 공개경쟁으로

'현대판 음서제' 전략 무기 계약직 공무원

해 개선 방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은 기간제 근로자(이하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공개 경쟁을 통해 실력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기계약직 등은 관리나 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무를 맡아보고 공무원 배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계약직 등의 수가 급증하면서 시·군의 인건비 부담이

단체장 등 '입김' 막을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비리 의혹 큰 곳 철저 수사를

늘어나자 무기계약직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 출신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공개경쟁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성군의 경우 184명의 무기계약직 가운데 182명이 보성군 출신으로, 이 가운데

105명이 고졸 이하, 영암군은 187명 전원이 영암군 출신이며 102명이 고졸 이하였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청원경찰, 환경미화, 도로보수,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보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각 시·군의 업무 배분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암군은 지난 2010년 행정보조 무기계약직이 76명에서 올해 105명으로, 단순노무를 맡는 기간제가 2010년 45명에서 올해 89명으로 늘었다. 장흥군 역시 지난 2010년 76명이었던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이 올해 143명이 돼 그만큼의 업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광양시 등의 무기계약직 노조는 최근 공무원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비정규직 구조가 만든 오랜 폐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정규직 공무원과 유사하고 기간제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만큼 채용도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시족'의 허탈감도 높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까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용직을 대상으로 기능직 특채를 실시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중단

한 바 있다.

전남대에서 7급 공무원을 준비중인 정모(27)씨는 "앞으로 2년 내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때문에 정규직의 기회가 줄어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무안군의 경우 무분별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무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시·군은 채용 방식과 과정, 채용 후 업무 배정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 지역 내 유력인사 등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하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채용과정에서 불투명하거나 급품수수 등의 의혹이 큰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선거 때 도운 사람이 무기계약직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한 선수단 등록 연기... U대회 흥행 촉각



개인 엔트리 마감
중동 5개국 236명 등
115개국 1만 926명 등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할 선수단의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팀이 등록을 하지 않아 대회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개인 엔트리(entry·참가자 명단)를 마감 결과 115개국에서 1만926명이 등록했다.

지난 3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참가 접수서를 낸 141개국에 1만3336명 보다 나라 수는 30여개국, 선수단은 2400여명 적은 규모다.

다만 10여개국에 선수 선발이나 항공편 등 자금 일정 등을 이유로 등록 연기

를 요청했다. 국제 스포츠 대회 관례상 연기 이후 참가하는 경우도 많아 대회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선수단 출전 규모는 주최국인 한국이 687명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가 631명, 미국 591명, 중국 586명, 일본 524명 등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동지역에서는 5개국 236명이 등록했다. 이란 58명, 요르단 41명, 레바논 78명, 아랍에미리트 55명, 팔레스타인 4명순이다. 중동국가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등은 등록하지 않았다.

북한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팀은 이날 조지위에서 열린 체조 조추첨에도 불참, 체조선수단의 경우 참가 자체가 어렵게 됐다. 조지위는 FISU와 협의를 통해 북한 체조선수단의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 3월 FISU에 육상과 다이빙, 여자축구 등 8개 종목에 108명의 선수와 임원을 파견하겠다는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북한 대표단은 지난 4월 광주에서 열린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10년간 개최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매 대회 빠짐없이 선수단을 파견해왔으며 그 규모는 평균 45명선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선수가 참가해야 하는 만큼 등록 일정 연장 등 FISU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홍보 꽃 조형물

4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홍보하기 위한 꽃 조형물이 설치됐다. 치어리더 공연단인 '이카루스'가 조형물 앞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거리홍보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때문에... 성화 봉송 차질 오나

제주도서 국내 봉송 시작 경기도 제외 요청 조직위 차량 이용 등 검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밝힐 성스러운 빛인 '성화' 봉송이 드디어 전국 대장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느닷없는 메르스 여파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성화봉송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4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주도 성산 일출봉 광장에서 광주 U대회 성화봉송 1주자로 강경

용 성산리 이장이 출발했다. 성화는 제주도를 돌며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고,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에 안치된 뒤 다음날인 5일 제주공항을 통해 인천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는 8일 서울, 9~10일 경기도 등을 거쳐 전국 17개 시도 60곳을 돌게 된다.

성화봉송에는 소녀시대의 수영, 피에스타의 재이 등 걸그룹과 함께 대학생·일반인 3150명이 주자로 참여하며, 전국 3700km를 돌아 개최식이 열리는 오는 7월 3일 광주U대회 주경기장에 도착한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날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메르스 등을 이유로 성화 봉송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성화봉송 주자 대신 차량을 이용해 봉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광주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이런 U대회를 빛낼 신성스러운 성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당황스럽다"면서도 "타 자치단체에 성화봉송을 강제할 수도 없는 만큼 주자 대신 차량으로 성화 봉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메르스 대응 비상 시스템 가동

시·도교육청도 대책본부 설치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민관 공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4일 시청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윤장현 시장과 지치구, 의료계, 교육청, 경찰청, U대회조직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다. 시와 자치구는 비상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엔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가동,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 격리치료를 하도록 했다. 또 관계기관·단체 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메르스와 관련한 상황이나 정부 지침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 발생이 늘고 도내에서 자가격리 중인 환자 간 접촉자가 확인됨에 따라 5일 오후 2시 도청 정약용실에서 이낙연 도지사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도 4일 교육국장

을 본부장으로 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각 학교 교감과 보건교사를 긴급 소집해 메르스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교육청도 5일 보건급식 담당자를 소집해 메르스 대책을 논의한다. 시·도 교육청은 각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당부하고, 수화여행 및 체험학습 자제를 요청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개농사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광주유니버시아드는 컬처버시아드

지구촌 청년들의 '문화난장'을 준비한다
7월 광주스타디움에 뜨는 세계의 별들

기획
스토리의 공간,
히스토리
역사는 문화콘텐츠의 마르지 않는 샘
문화캐스팅 1순위는 조선의 인물들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국내외 현장을 가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
대도시 하늘에 걸린 푸른 별천지

우리동네를 소개합니다
임국 너브실마를, 인문 향기
그윽한 '일봉서원' 철학마을

문화계 소식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운영,
개관콘텐츠 공개

리빙 앤 스타일
건고하고 아름다운
한지공예의 세계

스티 데이트
'냄새를 보는 소녀'
악역 열연 배우
남궁민

영화이 만난 이 사람
영화의 다양한 얼굴 만드는 '에로거장' 봉만대
무각사 참선 지도, 푸른 눈의 스님 경본

정문수의 스포츠 인사이트
첫 흑인 메이저리거 재키 로빈슨

해남
산천리의 시작, 생명의 평결

옛 지혜 오늘에 되살리는 고전 저술가 정민

"강진 백운동 별서 정원과의 만남은
다산이 맺어준 인연"

남도의 장인들
우리 쪽빛 복원하고 지켜가는 염색장 정관채
"층내 날 수 없는 자연의 빛깔이어서 소중"

노중훈의 세계 문화도시 기행
프랑스 노르망디
'빛의 마술사' 모네가
사랑했던 도시들

화가의 작업실
필묵의 조형성을 탐구하는
수묵추상 화가 정광희

아시아 스토리 로드-말레이시아
쿠칭 컬처밸리에서 만난
삶의 무늬 새긴 춤

정문수의 스포츠 인사이트
첫 흑인 메이저리거 재키 로빈슨